

<교제를 통한 유익>

찬 양 ----- 221장

말 씀 ----- 마18:19-20 ----- 윤준식 목사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기도문

221 주 믿는 형제들 (통일 525) 성도의 교제

J. Fawcett, 1782 Blest be the tie that binds
모듬으로 말새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J. H. G. Nagel (1768-1836) Arr. by L. Mason, 1845

1.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2. 하 나 님 보좌 앞 다 기
3. 피 차 이 별 슬 할 때 과 수 고
4. 또 차 이 별 슬 할 때 과 수 고

사드나 슬 컴리누며 은니고도 천우늘주 국리동안 의의고에 교민동교 제음락제

갈소하하 으망면면 니이서서 참주참포 종안사다 은에랑시 천하나만 교나누나 라라네리

섬김이 영성훈련

중보기도부

2023년 4월 20일(목)

교회 / 출발: 오전7:30 ~ 도착: 오후9:30

7:30~ /2시간30분	출발(간식)
10:00~10:25 이동 5분	서산 해미순교성지 / 10분-말씀과 기도
10:30~11:00 이동 40분	서산 해미읍성
11:40~11:50	드르니항, 꽃게다리로 이동하면서 사진촬영
11:50~12:40 이동 50분	감동의 밥상 / 황해횃집(드르니항)
오후 1:30~3:50 이동 20분	천리포 수목원 - 65세이상 할인 (주민증 지참) 이동하면서 만리포 해변 경유 / 5분간 ?
4:10~5:25 이동 15분	요일별로 테이블 교제 / 파도리해변 카페 파파야
5:40~6:30	냠냠쩍쩍 / 호호아줌마
6:30~9:30 /3시간	고~고~ / 교회로

<개인 준비 사항>

- ① 설레이는 마음
- ② 편안한 복장과 신발, 모자
- ③ 65세 이상자는 신분증 준비
- ④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향기를 담은 넓은 가슴

□ 해미순교성지

해미 성지는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당시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백 년의 박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서슬이 무뎌지지 않았던 해미는 수천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당한기 막힌 사연을 갖고 있다.

이 박해 기간 동안 해미 진영에 있었던 두 채의 큰 감옥은 잡혀 온 교우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매일 서문 밖으로 끌려 나와 교수형참수,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으로 죽어 갔다. 또 더욱 잔인하게 돌다리 위에서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돌에 매어치는자리개질이 고안되기도 했고, 여러명을 눕혀 두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꿈틀거리는 몸뚱이를 발견하면 헛불로 눈을 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미 진영의 서문 밖은 항상 천주학쟁이들의 시체로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다 한다.

한 명씩 처형하는 데 지친 관헌은, 특히 1866년 병인년에서 1868년 무진년에 이르는 대박해 시에는 시체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생매장을 하기도 했다. 해미 진영의 서넉 들판에 수십 명씩 끌고 가 아무 데나 땅을 파고 구덩이에 산 채로 집어넣고 흙과 자갈로 덮어 버리는 참혹한 행위가 수없이 되풀이 됐다.

이렇게 스러져 간 순교자들은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순교자들 중 132명의 이름과 출신지를 남기고 있으나 그나마도 불확실하고 나머지는 이름 적 자 하나 남기지 못한 무명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던 해미 읍성에는 교우들이 갇혀 있던 감옥터가 있고 그 옆에는 고문대로 쓰던 호야나무가 남아 있다. 이 나무 위에 머리채를 묶인 순교자들이 매달려 모진 고문을 당했던 것이다. 서문 밖 순교지에는 1956년에 서산 성당으로 이전, 보존되었던 자리개 돌다리가 1986년에 원위치를 찾아 보존되다가 2009년 1월에 여ս긔곶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특히 해미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매장 순교 터와 그 순교자의 유해가 확인 발굴되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해미읍성

해미는 조선 초기 충청 병마절도사영이 위치한 곳이었다. 조선 중기의 1651년 병마절도사영이 청주로 옮겨지면서 해미는 현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400~1,5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하는 진영으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군사를 거느린 무관 영장은 해미 현감을 겸하였고, 이에 해미 현감은 충청좌도의 내포 지방 해안수비 명목으로 국사범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해미 관아의 담당 지역은 충청도와 함께 경기도 평택에 이르렀다. 이에 담당 지역의 신자들이 체포되면 모두 해미읍성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이들은 해미읍성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마지막에 처형당하는 곳은 해미읍성 서문 밖과 해미천변(여ս긔곶)이었다.

해미의 첫 순교자는 1800년 1월 9일에 장살형으로 순교한 인언민(마르티노)과 이보현(프란체스코)이다. 1839년 기해박해 이전까지는 1814년에 옥사한 김진후(비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를 비롯하여 모두 8명이 순교하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 시기에는 132명이 순교하였는데 성명미상의 순교자 47명을 더하면, 해미읍성에서 순교한 사람은 179명 이상이다. 그밖에 해미천변(여ս긔곶)에서 순교당한 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명이 넘는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해미읍성의 큰 감옥 두 곳은 한티고개를 넘어 내포 지방에서 끌려온 천주교인(천주학 죄인)들로 항상 북적였다고 전해진다. 감옥이 있던 장소에는 당시 손발을 묶이고 머리채를 묶인 순교자들이 매달리어 고문대로 쓰여지던 호야나무 가지가 지금도 흔적을 지니고 서 있다. 이 감옥터를 1950년대에 해미 공소 신자들이 식량을 절약하여 1800여 평을 확보하고 공소 강당을 세웠는데, 1982년에 정부가 문화재 관리 정책의 명목으로 공소 강당을 철거하고 그 터를 일부 보상, 일부 징발하고 순교 기념비만 새로 세워주었다. 그 후 오늘날 그 터의 교회적 성역화 사업이 불허되고 있다.

